

한국과 일본의 상장례 문화 비교

- 가톨릭 장례미사와 위령기도를 중심으로 -

조정연*
jyc0704@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융합된 양국의 위령기도 |
| 2. 한국과 일본의 가톨릭 수용과정 | 5. 나오며 |
| 3. 한국과 일본의 가톨릭 장례미사와 위령기도 | |

主題語: 상장례 문화(culture of funeral), 영혼(soul), 위령기도(litanies), 전통(tradition), 가정 제례(ancestor rites in family)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양국의 가톨릭의 수용에 있어서 두 나라의 전통과 관습, 조상에 대한 인식 등이 반영된 장례의식의 양상을 비교분석한다. 특히 종교와 신앙의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과 일본의 문화 기반에 따른 외래종교를 수용하는 양상의 차이와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사자제사의 기반으로써 불교민속과 유교민속이 가톨릭 의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외래문화의 수용과 더불어 융합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가톨릭종교와 의례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스도교 박해와 서양과의 교류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현재의 사회현상으로서 가톨릭 상장례 의례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한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관습과 정서가 담긴 가톨릭 장례문화와 위령기도의 양상을 비교한 것으로, 이 분야는 일본문화론이나 한일 그리스도교 문화론에서도 아직 미개척 분야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가톨릭의 전래가 토착 종교와 융합하여 새로운 가톨릭 장례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이를 검증할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는 가톨릭과 유교민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전공 박사과정

속의 융합이, 일본의 경우에는 가톨릭과 불교민속의 융합이 새로운 가톨릭 장례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2. 한국과 일본의 가톨릭 수용과정

2.1 한국의 그리스도교 전래와 상장례

한국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시기는 조선시대인 1784년이였다. 중국을 오가던 연행사 사신들에 의해 전해졌고, 유학자들의 활동과 한역서학서¹⁾가 큰 역할을 했다.

당시의 조선시대 유교의 이념인 충효사상을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가운데 전래된 그리스도교는 기존 사회의 윤리체계의 혼돈을 초래하는 서양 종교였기에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그 결과 정권의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장례 때나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한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기도문을 초기 교회 지도자들과 유학자들이 한글로 번역한 기도서, 즉 『수진일과』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과 조상제사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겪던 조선 교회가 1790년 윤우일을 베이징에 파견하자, 조선 교회의 사정을 들은 베이징의 구베아(Alexander de Gouvea, 湯士選, ?~1808) 주교는 조상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다.

조선시대 후기, 유교의 이념인 충효사상이 중시되던 사회 안에서 전래된 가톨릭은 전통과 관습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구베아 주교의 가르침대로 권상현이 부모님의 상을 당하고도 장례는 치렀지만, 신주를 모시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자, 무군무부(無君無父)의 잘못된 사교로 근 100여 년 계속되는 탄압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12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던 앙베르(Laurant Marie Joseph Imbert, 范世亨, 1796~1839) 주교가 1838년에 제2대 조선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조선에 들어와 교우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서와 교리서들을 번역하였으며, 당시 교우들은 그 기도서로 매일 아침 저녁 기도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들을 혼자 혹은 함께 모여 바쳤다.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의 달레(Claude Chales Dallet, 1829~1878) 신부가 저술한 『한국 천주교회사(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²⁾에 박해 당시 조선 교회의 실정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

1) 이원순(1986)『조선서학사연구』일지사, p.81

2) 한국교회사연구소(2005)『한국 가톨릭 대사전』제3권, pp.1534-1535

모방 신부가 1837년 말에 파리 외방전교회 신학교에 보낸 연례 보고서를 보면, 당시 교우들이 위령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실제로 바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1839년 기해박해 후, 새로 입국한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한국인 사제인 김대건 신부, 최양업 신부와 학식 있는 회장들과 함께 한문이나 서양 말로 된 기도서와 교리서들을 번역하는 데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특히, 한문을 잘 알던 제5대 조선 교구장인 다블뤼(Marie Antoine Nicolas Daveiluy, 安敦伊, 1818~1866) 주교는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말, 역사, 관습 등을 열심히 익혀 지식을 쌓아갔다. 당시의 대표적인 기도서는 『턴쥬성교공과』³⁾이다.

1862년 목판본으로 처음 발간된 『턴쥬성교공과』는 1917년까지 제6판본이 간행되었다. 1863년 신자의 장례식을 대낮에 십자가를 들고 행렬을 지어 행진하기도 하여, 사회적으로 놀라운 다른 장례식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1972년 『가톨릭교리서』가 발간될 때까지, 100년 이상 공식 기도서로 사용되었다. 1592년 대구대목구가 발간한 『턴쥬성교공과』부터 연옥도문이 연도로 바뀌고 성영(聖詠=시편) 129(130)편, 50(51)편 다음에 연도 전체가 아닌 성인호칭기도를 한정하는 의미인 연옥도문, 죽은 부모를 위하여, 그리고 연령을 돕는 찬미경 등이 수록되었다. 『턴쥬성교례규』가 발간되기 이전에도 『턴쥬성교공과』로 매일 저녁기도를 바칠 때마다 위령기도의 중요 부분도 함께 바쳤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교우들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기도생활로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공’을 실천한 것이다.

현재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문화는 ‘연도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시행되고 있으며, 상장예식의 모본이 되고 있는 『턴쥬성교례규』(1864)는 기도문과 예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책은 중국교회의 한문본 『聖敎禮規』의 장례 부분을 간결하게 하여 단순 번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가톨릭 상장례 문헌의 내용과 특징을 출간연도에 따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기도서와 상장례 예식서

문헌명	출간연도와 특징	요지
천주경과	1780년 경, 파리의방전교회의 모예신부저, 로마예식을 중국문화관습에 맞게 저술	‘바쳐야 할 기도’를 연도, 연옥 영혼을 위한 호칭 기도, 연령을 돕는 찬미경, 먼저 선종한 주교와 신부를 위한 기도로 의미 구분
턴쥬성교공과	1862년, 한국문화 관습에 맞게 편찬	파리외방전교회 성직자들, 최양업 신부, 평신도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편찬됨. 조선교회의 공식기도서

3) 박명진(2016)『한국천주교회상장례』가톨릭출판사, p.66

턴주성교례규	1865년, 조선 교회의 상장예식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최까지 100여 년 동안 상장례 거행과 위령기도 바치게 됨
성교예규	가톨릭출판사가 『턴주성교례규』의 표기법만 바꾸고 일부 내용 추가 하여 1990년까지 발간	상장예식서,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호칭 기도(연옥도문)를 바친 후, 한문본 『성교례규』의 먼저 죽은 형제 친척 은인을 위한 축문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 『턴주성교례규』에 없던 기도를 수록
상장예식	2003년 초판 간행.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상장예식서
가정제례예식	2012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권고	조상을 기억하는 기일 제사와 명절 차례

2.2 일본의 그리스도교 전래와 상장례

동북아에서 그리스도교는 1549년 일본에 가장 먼저 포르투갈 예수회에 의해 들어오게 되었다. 유입될 당시의 일본 사회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아닌 지방분권, 즉 근세인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지방 영주들이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세력 다툼을 위해, 항해하고 있던 포르투갈의 선원들을 통해 그들은 무기나 상업적 물품 교류 등 무역활동을 행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서구의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되고, 서양의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들어오자 영주들은 휘하의 군사와 하인들까지 집단적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규슈(九州) 나가사키(長崎)를 중심으로 1580년에는 10만여 명, 17세기 초에는 약 45만여 명의 신자 수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15~16세기 일본의 전국시대(戰國時代)에는 100년간의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속에서 민중 신앙이 생겨나고 일본인의 가치관과 종교관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일본 기성불교의 세력과 모순점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4) 선교사들은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통해, 인간의 생명에 대한 평등주의나 아프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만들고 봉사하였다. 그들이 박애주의로 치료와 교육하는 실천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일본 그리스도교의 신자 수가 지방 영주들을 중심으로 집단 개종을 하는 등 점차 증가되었다. 그리스도교 세력에 위협을 느끼게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는 강력한 정치적인 종교 압박을 시작하였고, 1587년 6월 29일 선교사 추방령⁵⁾을 내리게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파테렌 추방령을 내린 연유를 당시에 코엘료 신부에게 보낸 통고문에서,

4) 고노이 다카시(2008) 『일본 그리스도교사』(이원순 역), 한국교회사연구소, pp.41-44

5) 五野井 隆史著(2002) 『日本キリシタン史の研究』 吉川弘文館, pp.294-297

“사다메(定: 규칙)

(1) 일본은 신국이므로 기리시탄 국가로부터 사법을 전해 받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

(5) 지금 이후 불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는 상인은 물론 누구나 기리시탄국을 왕래하는 일은 그대로 할 수 있다.

이상

텐쇼 15년 6월 19일 朱印⁶⁾

라고 밝히고 있다. 국시에 의해 그리스도교는 전교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체제가 불교를 행정기구의 말단으로 이용한 단가제도(檀家制度)가 만들어졌으며, 슈몬 아라타메(宗門 改め)⁷⁾가 생겨났다. 이는 일본에서 현재의 장례식이 절과 승려를 중심으로, 불교식의 장례⁸⁾를 치르게 되는 토대가 되었다.

3. 한국과 일본의 가톨릭 장례미사와 위령기도

3.1 가톨릭의 장례미사와 위령기도

초대 그리스도교 장례예절의 첫 번째 뿌리는 유다이즘이며, 그 당시의 신자들은 삶도 중요하지만, 생을 마치고 장례를 치르게 되면 시신을 다루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유대 관습에 육신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그리스도교 신앙을 더하여 정성껏 거행하였다. 가족들이 단식도 하고 그 슬픔에 곡도 하였으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장례식에서 슬픔을 겉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스카와 관련된 ‘시편과 감사의 찬가’를 불렀다. 고대 로마에서는 임종하는 사람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관습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때부터 임종자를 위해 밤샘기도를 했다고 하니, 위령기도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4세기 중반까지 소급할 수 있는 문헌인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도 묘지에서 행해지는 위령미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음복의 관습과 무덤에서의 미사가 처음에는 함께 행해지다가 서서히 위령미사만 남게 되었다.

6) 고노이 다카시(2008)『일본 그리스도교사』(이원순 역), 한국교회사연구소, pp.240-241

7) 고노이 다카시(2008)『일본 그리스도교사』(이원순 역), 한국교회사연구소, p.138

8) 통상적으로 사찰에서의 장례식인 호요(법요, 法要)는 사자의 유체가 도착하면, 독경(讀經) ⇒ 소향(燒香) ⇒ 호와(法話) ⇒ 성묘(お墓參り) ⇒ 회식(會食)의 순서로 진행된다.

중세 초기 교회의 위령미사 기도문을 다양하게 전해주는 젤라시오 성서집의 3권 91부는 망자를 위한 기도로 꾸며져 있다. 이 예식서에서 망자의 집에서 성당까지 미사 후 묘지까지 행렬을 하게 되는데, 참석자들은 시편과 후렴을 노래한다. 이 시편 중에 파스카의 시편이 들어있다.

중세 중기와 후기에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생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와 참회의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고 신학의 발달을 불러일으켰으나, 장례예식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기도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멘데(Mende)의 주교였던 두란두스(G. Durandus, 1230~1296)는 클뤼니 수도회의 장례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임종의 순간이 오면 재를 뿌리고 성인호칭기도를 바치는데 후렴은 <그를 위하여 빌어주소서(Orapre eo)>라고 변형하였다. 성무일도는 저녁기도에서 아침기도까지 계속되며, 이 기도가 끝나면 장례미사가 이어지고 미사 후에 곧바로 묘지까지 행렬하여 시신을 매장한다. 이러한 수도원 전승의 장례예절은 1614년 『로마 예식서』의 장례예절에 그 골격이 수용되었다.

3.2 한국과 일본 위령기도의 역사적 배경

두 나라 모두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에는 로마 교황청의 상장례에 관한 『로마 예식서, *Rituale Romanum*』(1614)⁹⁾을 근거로 상장례가 이루어져 왔다. 루터(Luther. Martin, 1483~1546)의 종교 개혁(1517) 이후에 가톨릭교회는 이에 대응하여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를 개최하였고, 전례서들을 새롭게 편찬하였다. 이로써 위령기도도 새로 만든 예식서와 시간 전례서(성무일도서)와 함께 수록되었다. 중세의 장례를 간소화한 교리가 교의사적으로 발전한 시기였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파스카 성격을 띠는 기도문을 줄였다. 이 공의회는 연옥교리 등 세계 각국의 주교들이 만나 시노드를 통해 개최하고, 제각기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하며 추후의 나아갈 바를 논의했던 획기적인 모임이었다.

3.2.1 한국 위령기도의 역사적 배경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교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고, 고유의 장례예식이 없어 유대교의 장례 형식으로 찬가와 기도문을 사용하였다. 그 후,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에 입각하여 교우의 임종 시에는 가족과 이웃 교우들이 위령기도와 장례시의 찬미가를 노래로 사자의 영혼을 위로하며 장례를 치렀다. 중세에 교의적으로 연옥교리가 강조되어 위령기도의 중요성이 부각

9) 한국교회사연구소(2005)『한국 가톨릭 대사전』제7권, p.4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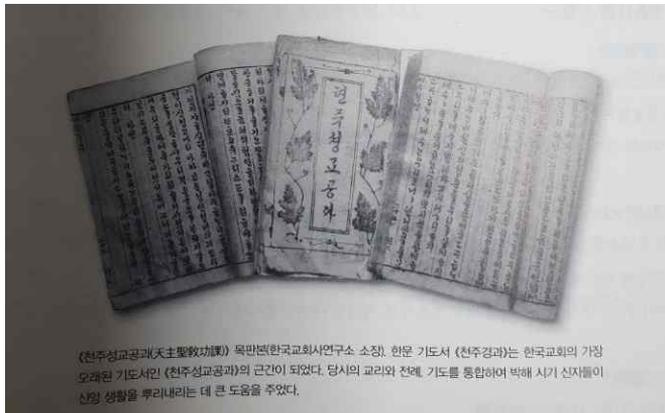
됨으로써, 성인의 통공으로 사자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성인호칭 기도로 공동체의 일체감이 생성된 것이다.

트리엔트공의회 이후, 공식 예절서로 1614년 『로마 예식서』가 공포되고, 새로 편집한 전례서와 시간 전례서(성무일도), 장례미사, 사도예절, 위령기도, 기도서 등을 발간출판하게 되었다.

한국은 그리스도교를 중국을 다녀오던 통신사들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상장례도 중국의 예식에 적잖이 영향을 받았다. 상장례와 관련된 중국의 가톨릭 예식서는 주로 선교사 부글리오(Buglio, 利類思) 신부가 저술하였다. 1614년 출간된 로마 예식서를 바탕으로 혼인과 장례 예식서인 『성교예규(聖敎禮規)』를 간행하여 장례를 치렀다. 중국 교회는 효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정서와 관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보편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상장 예식서를 편찬하게 되었다.

파리외방전교회의 모예(J. M. Moye, 1730~1793) 신부가 저술한 『천주경과(天主經課)』라는 기도서에는 한국의 공식 기도서인 『턴주성교공과』와 상장 예식서인 『턴주성교례규』에 실린 위령 기도문들의 원전(原典)으로 사용된 연도, 연옥영혼을 위한 호칭 기도, 연령을 돕는 찬미경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 그리스도교는 초기에 조선시대 후기 평신도를 중심으로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갔다. 중국의 그리스도교 교회서적을 통해 교리서와 기도서 등 여러 예식을 접하게 되었다. 자연히 유학자들의 번역서가 나오고 서민들은 한글로 재번역된 서적들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장례예식에 관한 『턴주성교례규』가 발간되어, 참혹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예법대로 상장례를 거행해 왔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열릴 때까지 한국 가톨릭교회는 1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위령기도를 바쳐올 수 있었던 것이다.



〈턴주성교공과(天主聖敎功課)〉 목판본(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한문 기도서 《천주경과》는 한국교회의 가장 오래된 기도서인 《턴주성교공과》의 근간이 되었다. 당시의 교리와 전례 기도를 통합하여 박해 시기 신자들이 신앙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사진1> 『턴주성교공과』

3.2.2 일본 위령기도의 역사적 배경

전래 초기(1549년 이후)에는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한 장례미사와 그레고리안 성가로 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행해졌다. 막부의 시기에는 한 때 70만 명을 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었으나, 탄압이 시작되어 지방으로 숨어들어 가게 되었다. 정치체제의 강력한 제약으로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자들이 죽게 되자, 배교하는 신자들도 많았다. 따라서 불교식 장례를 치르고, 감시자들이 떠난 후 관음 마리아상을 놓고 다시 기도하는 등 위장된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었다. 신자가 죽게 되어도 장례미사를 드러내놓고 드릴 수 없어, 자체적으로 신자들끼리 장례미사를 드릴 수 있는 사제 역할, 복사 역할 등을 분담해 장례를 치렀다.



관음마리아 - 五島 岳교회사료관

<사진> 관음 마리아상

잠복시대 기리시탄에게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가 관혼상제 중 장례식이었다. 초가터를 위시하여 지도자들은 병자를 지키며, ‘죽음의 고통’ 또는 ‘최후의 기도’, ‘도움의 길’이라는 ‘임종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 숨을 거두면, 콘치리산(완전통회의 기도) 63편과 ‘예수 그리스도께 사망을 알리는 기도’ 등을 계속해 왔다.

1865년 3월 17일 오우라 천주당에 나타난 기리시탄들은 다름아닌 나가사키 중심지에서 북동쪽에 있는 산기슭에 살던 우라카미 지역의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1867년 4월 6일 히라동네의 장례가 있었을 때도 사찰의 스님을 부르지 않고, 그 이후의 장례 때에도 스님을 거부하고 장례를 치렀다. 막부의 규제에 의해 테라우케(寺講·불교도가 되는 것) 제도로 단가의 스님이 임회하지 않으면 장례 시 납관할 수가 없을 때였다. 스님이 경(經)을 하도록 하고, 위치가 더 높은 곳이나 다른 집의 높은 방에 들어가 스님의 불경을 없애는 기도, 즉 ‘기리시탄의 기도’(포르투갈어로 오라쇼= Oratio) 장례기도를 담는다는 의미로 향아리를 앞에 놓고 입 속으

로 읊조리며 염불을 외우는 것처럼 소리없이 하었다고 전해진다.¹⁰⁾ 점차 사자를 위한 기도가 사라져갔고, 현재 일본의 장례미사에서는 위령기도 대신에 침묵으로 사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일본 고유의 그리스도교 위령 방식을 그리스도교 박해 및 불교민속과의 관계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양국의 위령기도

4.1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개정된 장례미사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세계 각국의 주교들이 만나 시노드를 개최하고, 제각기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하며 추후의 나아갈 바를 논의한 공의회이다. 이후 개정된 장례 예식서 『Ordo Exsequiarum』이 나오게 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강조하는 상장례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그리스도교 신자의 죽음의 부활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다.
- ② 각 지방의 상황과 전통에 보다 잘 적응하여 토착화한다.
- ③ 사정에 따라 전례문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함과 동시에 때로는 신자도 사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위 상장례 특징에 따라서 위령기도도 각 나라, 각 지방에 따라 특색 있는 고유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장례미사는 부활초를 켜고 집전되었으며,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희망으로 사체의 제의색도 다시 흰색으로 바뀌게 되었다. 양국의 위령기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시대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으며, 현재 상장례의 위령기도로 변화되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4.1.1 한국의 문화와 융합된 장례미사

가톨릭 장례식의 순서는 보통 사자의 집에서 행해지는 출관식, 교회에서의 입당식, 미사성제, 사도식과 최후에 묘지에서의 매관식이다. 이러한 전례는 약 9세기 초부터 시작된 양식이 지금

10) 박양자(2008)『일본 기리시탄 순교사와 조선인』도서출판 순교의 맥, pp.314-315

의 로마식으로 통일되었고, 전례는 사제가 성전을 바라보고 라틴어로만 가능¹¹⁾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개정된 한국의 장례미사는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진3> 명동성당 가톨릭 장례 미사(2018. 8)

- ㉠ 시작 예식
입당송
본기도 : 영구가 제자리에 놓이면 본기도를 바친다.
- ㉡ 말씀 전례
제1독서- 구약 성경에서 선택.
제2독서, 제3독서는 사목적 이유로 생략 가능하다.
화답송
복음환호송(알렐루야)
복음
보편지향기도
- ㉢ 성찬의 전례
영성체송
- ㉣ 평화의 인사
- ㉤ 고별식 : 관수, 헌향, 헌화가 이어진다.
- ㉥ 유족 대표의 인사

장례미사 전에 고인을 위해, 공동체의 신자들이 연도를 드린다.

11) 篠崎弁藏編(1953)『カトリック 葬儀』中央出版社, p.2

4.1.2 일본의 문화와 융합된 장례미사



<사진4> 일본 가톨릭 장례미사(2018.8)

일본인의 정서가 장례식에서도 느껴지는 것은 거의 소리 없이 미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자의 죽음이 어떠한 것이든 이별하는 상실감이 있는데, 거의 소리를 내어 우는 문상객은 없었고, 가장 가까운 유족들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슬픔을 참고 있었다. 고령화 시대의 일본에서는 나이가 들면 종활이라는 삶의 형태로 죽음을 준비해 간다. 그리스도를 따라 흠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초연하게 느껴졌다. 종교관과 사생관의 차이에서 오는 상장례 문화의 다름이라 생각된다.

장례미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㉓ 개제(開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인을 위한 기도(아멘과 침묵) - 입당송 - 본기도 ㉔ 말씀의 전례(ことばの典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독서 - 화답송(시편) - 복음환호송(알렐루야) - 복음말씀 - 공동체의 기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㉕ 감사의 전례(感謝の典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체 나눔 - 사제의 미사 안에서
고인을 위한 기도: ‘침묵’으로 기도 ㉖ 평화의 인사(交わりの儀) ㉗ 고별과 장송(告別と葬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수, 헌향, 헌화가 이어진다. ㉘ 유족 대표의 인사 |
|--|---|

4.2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의 위령기도

4.2.1 전통문화와 융합된 한국의 위령기도(연도 1)

현재 한국은 장례 시에는 미사 전에, 명절에는 제사상을 차린 후, 사자를 위한 위령기도를 바치고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는 사제와 더불어 평신도가 미사를 이끌 수 있게 되었다.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 아멘.
- + 은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 ◎ 또한 사제와 함께.

평신도가 주례할 때에는 십자성호를 긋고 다음과 같이 한다.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 아멘.
- +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인
()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

- + 주님,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신 ()를 받아들이시어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성경 봉독-

㉠ 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연도)

- (ㄱ) 시편62(63), 2-9: 구성지계
- (ㄴ) 시편129(130)
- (ㄷ) 시편50(51), 3-21

- ㉠ 성인호칭기도(상황에 따라 생략이 가능)
- ㉡ 일반 문상객의 기도(자녀의 기도, 친구의 기도 중 선택)
- ㉢ 찬미와 간구를 바치는 기도
- ㉣ 주님의 기도
- ㉤ 마침기도(기도합시다 없이)

예식이 끝난 후, 신자들은 시신을 향하여 성수를 뿌리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이나 예의를 표하고 빈소를 나온다. 그동안 적절한 성가를 부른다.

『성교예규』에서 임종 때 바치는 임종 도문과 연도 때 바치는 연옥도문이 성인호칭기도로 대체¹²⁾되었음을 볼 수 있다. 옛 상장예식인 『툰쥬성교례규』의 기록을 보면 시신을 상여에 모시고 가면서 성영(시편) 50을 행(行)하며 낭송하라(즉 가면서 노래하라), 또한 연옥 도문과 찬미경도 그리하라고 쓰여 있음을 볼 때, 도문이라고 하는 호칭기도는 옛 상장예식에서부터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편과 호칭기도를 상여를 메고 가는 이의 발걸음에 맞추어 기도하는 형식이 현재의 어절장단의 기초가 되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하는 위령기도는 보편교회 안에서 다 행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천주교회의 연도는 세계의 다른 교회와는 아주 다르게 노래로 부르고 있다.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노래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면, 한국 천주교회의 공식 상장예식서의 모본이 되는 예식서들을 보면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상례문답 28항을 보면 연도가 왜 노래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다. 이 슬픔과 근심은 죽은 이의 모든 죄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받고 해방되어,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슬픔과 근심의 노래가 아닌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담은 것으로, 떠나는 이를 보내며 모든 공동체가 함께 애달픔을 표현한 것이다.

12) 김수환(1974)『성교예규』가톨릭출판사, p.100

<표2> 『성교예규』의 문답

<p>『성교예규』(1947, 노기남주교 감준)</p>	<p>28항 문) 상사 때에 염경 기구만 하면 족하거늘, 어찌 구태어 소리를 높이고 노래하여 외우느뇨 이는 즐거워하는 모양 같아서 조상의 예에 크게 합치 않음이 아니냐. 답) 그렇지 아니하니, 이 비록 노래 없이 거저 경을 외워도 족하나, 경을 노래하여 외움이 그 연고 있으니, 하나는, 노래하는 소리 더욱 더 내 생각을 들어 주게로 향케 하고, 더욱 내 마음을 수렴케 하고, 더욱 우리 마음의 큰 원을 드러냄이요. 둘은, 거룩한 노래의 소리 만일 법대로 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면 능히 마귀를 쫓느니, 대개 마귀 항상 근심하여 신락의 소리를 듣고 견디지 못함이요. 셋은, 장사 때에 교우의 하는 소리는 또한 슬퍼하고 근심하는 소리니 그러나 과도히 못할지라. 대개 우리 근심은 바람 없는 무리의 근심과 다르니라.</p>
-------------------------------	--

구전으로 이어받은 현재의 가창 형식을 놓고 볼 때, 계와 응으로써 선창을 하는 두 영경자를 중심으로 시편과 호칭기도를 한 구절씩 나누어 부르면서 신자 전체가 일정한 흐름으로 불러왔다. 상여를 메고 가는 발걸음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밤샘기도를 할 때는 선창자가 연도의 전체적인 빠르기를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2.2 전통문화와 융합된 일본의 위령기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일본어로 사제가 평신도들을 마주하고 집전하게 되었다. 장례미사에서 한국의 위령기도처럼 미사 전후에 위령기도를 부르지는 않지만, 사제의 미사 집전 아래 ‘아멘’ 혹은 침묵으로 응답하면서 사자를 위해 기도한다. 현재 일본 장례미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㉔ 開祭(제례 시작)

先 ただいまより〇〇〇〇さんの葬儀を行います。

(이제 지금부터 〇〇〇〇님의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入堂の行列と入祭の歌 (입당의 행렬과 성가)

司祭は火をともした復活のろうそくを手に、奉仕者(香と聖水を持つ)を伴い、沈黙のうちに聖堂入り口で柩を迎える。(사제는 불을 켜 부활의 초, 향과 성수를 든 봉사자와 함께, 침묵 속에 성당 입구에서 관을 맞이한다.)

司 世の光キリストとともに神の祭壇に向かって進みましょう。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遺体への表敬- (유체에의 경의표시)

司祭は祈りに招く。(사제는 기도로 초대한다.)

集会祈願(공동체의 기도)

㉔ ことばの典礼(말씀의 전례)

福音朗読(イザヤ25・6a, 7-9)(복음낭독: 이사야서25·6a 7-9)

答唱詩編(詩編42・2, 3+4, 5, 6)(화답송: 시편42·2, 3+4, 5, 6)

アレルヤ唱(マタイ11・25, 典礼聖歌275①)(알렐루야송: 마태11·25, 성가275①)

説教(강론)

司: わたしたちに先立って復活された主・キリストを信頼して、父である神に祈りましょう。

(사제: 우리들에 앞서 가시고 부활하신 주·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遺族の中から身近な者が唱える(유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기도한다.)

遺族代表の祈り(유족대표의 기도)

㉕ 感謝の典礼(감사의 전례)

- 奉納の歌と行列(봉헌의 노래와 행렬)
- パンとぶどうを供える(빵과 포도주를 거양한다)
- 司祭は沈黙で祈禱(사제는 침묵으로 기도)
- 交わりの議(성체배양)

㉖ 告別と葬送(고별과 장송)

- 灌水, 獻香, 獻花(관수, 헌향, 헌화)

㉗ 遺族代表のあいさつ(유족대표의 인사)

장례미사에서 한국과 같은 위령기도(=연도)가 일본 고유의 위령기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본 박해의 역사를 연상해 본다면 탄압의 정도가 심해 가쿠레 기리시탄으로 숨어들면서 소리 나는 기도는 생존을 위해 점차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라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식 위령의례로서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인 오봉에 붕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15일 백중에 하는 마츠리 행사)라는 가무를 한다.

<사진6>과 같이 마을사람들이 모여 사찰의 경내나 마을 곳곳에서 탐돌이 하듯이 함께 춤을 춘다. 붕 오도리는 조상의 영혼을 불러들여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형적인 불교민속의 위령의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즐거운 축제의 풍경을 자아내고 있으면서도, 각 개인의 모습에 주목하면 즐겁다고도 슬프다고도 할 수 없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나타낸다. 향후 이러한 불교민속으로서의 위령의례와 일본 그리스도교 위령기도와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진6> 오봉의 봉오도리 마츠리(お祭り)(2018. 8)

4.2.3 한·일 새로운 위령기도의 형성과정 비교

<표3> 한·일 위령기도의 형성과정과 변화

형성과정	한국	일본
위령 기도의 변화	조선 시대 그리스도교 탄압이 있어 도 조직적인 회장제도 로마 예식서의 상장례에서 하던 전통적인 연도가 이어져 내려왔다.	에도 막부의 정치적인 그리스도교 탄압으로 로마 예식서의 위령기도가 잠복 기리시탄 시대에 서서히 사라졌다. 집단적으로 모일 수 없어 공동체의 위령기도를 할 수 없었다.
제2차 바티칸공 의회 이후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그 위령 기도를 한국적인 곡조로 노래하며 영혼을 위해 기도해 왔다.	일본의 정서에 맞게 『장의(葬儀)』출간. 장례미사 중 사제의 기도에 ‘아멘’이나 침묵으로 위령기도를 대신하게 되었다.
조상의 인식과 사자의 영혼	한국의 가톨릭교회는 순교영성이 강한 선조들의 정신으로 영혼을 소중히 하며, 늘 목주 기도를 한다. 위령기도가 현재까지 존속하게 된 근거가 된다.	자연과 밀접한 환경적인 요소와 관련된 애니미즘적 성향으로 일본인은 조상의 사령이 시간이 지나면 조령이 된다고 믿는다. 영혼관이 개념에 차이가 있으며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경향이 짙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한국의 위령기도는 유교 혹은 민간신앙과 융합된 부분이 이어져 내려오고 발전되어 왔다. 공의회의 정신에 맞게 매년 지내는 기일, 장례미사와 그 이후에는 명절을 통해, 성전에 유교식으로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상들의 은덕에 후손들의 번영을 기원하며, 한국적인 곡조로 발전된 위령기도를 미사 전에 드리고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일본의 위령기도는 불교 혹은 민간 신앙과 융합된 부분이 내재되어 내려오고 있다. 한국과 같은 가톨릭 장례미사에서 드리는 노래로 된 위령기도는 따로

없으나, 사자를 위한 기도를 장례미사에서 기도, ‘아멘’이나 침묵으로 응답하며 떠나보낸다. 또 성가로써 사자가 가는 길이 편안하도록 정성을 드리며, 남아있는 가족들, 친척, 친구들을 위로하고 산자와 사자가 하나가 된다.

5. 나오며

각 시대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나 기존의 전통문화와 새로이 전래되는 문화는 충돌하기 마련이다. 한국과 일본의 가톨릭 장례미사에서의 위령기도도 서로 두 요소가 상충되어 관습과 융합된 부분도 생겨났다. 탄압이 계속되었어도 선교사로부터 배워 전승해온 교리와 전례를 바탕으로, 그 지방의 관습과 토속문화로 위장하기도 하고 여러 종교가 서로 절충하는 식으로 양국 자체 내에서 신앙공동체 조직과 전례를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융합한 두 나라의 장례미사에서의 위령기도가 현재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예식이 간단해지기는 했지만, 조상, 사자의 영혼을 위로하여 평안하게 이끄는 정성은 그대로 전승되어 표현되고 있다.

추모예절이나 가족 공동체의 나눔 등을 살펴볼 때, 한국의 가톨릭 위령기도는 전통적인 정신이 유교의 내용이나 형식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본 가톨릭 장례미사에서의 위령기도는 현재의 양상, 즉 미사 안에서는 따로 있지 않고 사자를 위한 기도와 ‘아멘’이나 침묵으로 대신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장례미사 시 한국은 관머리를 성전을 중시하여 그쪽을 향해 배치한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참례객들이 잘 보이도록 관을 놓으며, 고령화 시대의 문상객을 배려하여 앉아서 있게 하고 미사를 진행한다. 관의 위치와 관련해 중시하는 방향이 다른 것 또한 양국의 문화의 차이로 보인다. 최근 참여·관찰한 일본의 불교식 장례식에서는 사자를 기억하며, 그가 취미로 하던 악기연주·운동하는 장면 등을 배경으로 하여 제단을 꾸미기도 하였다. 관도 열어두어 참석자들이 유체가 있는 관 속에 현화할 수 있어, 모두 침묵 속에 조용히 사자가 떠나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다. 사자와 생자의 만남과 이별이 조화된 현대식 장례식이라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사소한 행동패턴의 차이 속에 한·일 양국의 근본적인 문화적 인식차이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상장례 문화를 가톨릭의 장례미사와 위령기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비교·검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노기남(1963)『천주성교공과』가톨릭출판사
 김수환(1974)『성교예규』가톨릭출판사, p.100
 이원순(1986)『조선서학사연구』일지사, p.81
 서울대교구 전례위원회(1991)『성교예규』가톨릭출판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3)『상장예식』가톨릭출판사
 한국교회사연구소(2005)『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3권, pp.1534-1535, 제7권, p.4328
 원영상(2006)「단가제도의 성립, 정착과정과 일본불교계의 양상」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제45집, pp.157-174
 고노이 다카시(2008)『일본 그리스도교사』(이원순 역), 한국교회사연구소, pp.41-44, pp.240-241, p.138
 박양자(2008)『일본 기리시탄 순교사와 조선인』도서출판 순교의 맥, pp.314-315
 이와타 시게노리, 조규현 역(2009)「일본장례문화의 탄생」『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신서 일본학총서』 94, 도서출판 소화, pp.107-109
 박명진(2016)『한국 천주교회 상장례』가톨릭출판사, p.6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2018)『상장예식』가톨릭출판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19)『위령기도』가톨릭출판사
 篠崎弁藏編(1953)『カトリック葬儀』中央出版社, p.2
 フランシスコ會(1971)『祈りの手引』光明社
 오리엔스宗教研究所編者(1988)『ともにささげるミサ』オリエンス宗教研究所
 泉富士男著(1992)『かトリック冠婚葬祭』中央出版社
 泉富士男編者(1993)『葬儀のしおり』トン・ボスコ社
 日本カトリック典禮委員會(1993)『葬儀』かトリック中央協議會
 五野井隆史著(2002)『日本キリシタン史の研究』吉川弘文館, pp.294-297
 齋藤美奈子著(2006)『冠婚葬祭のひみつ』岩波新書1004
 中野敬一(2013)「キリスト教(前夜式)に関する一考察」『神戸女学院大学論集』60(2), pp.99-114
 佐藤泰彦(2013)「キリスト教はいかに日本における生者と死者の交流に関わり得るか」『一 神教世界 = The world of monotheistic religions』(4), pp.14-29

논문투고일 : 2020년 06월 29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7월 15일
 1차 수정일 : 2020년 08월 06일
 2차 수정일 : 2020년 08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8월 20일

< 要 旨 >

한국과 일본의 상장례 문화 비교

- 가톨릭 장례미사와 위령기도를 중심으로 -

조정연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톨릭 상장례, 특히 양국의 전통적인 관습과 정서가 담긴 가톨릭 장례문화 위령기도의 양상을 통시적 접근으로 비교·고찰하였다. 한국은 로마 가톨릭의 정통성을 지닌 상장례의 시편을 노래하며, 사자를 위해 자비와 용서를 빌고, 영원한 안식에 들도록 일관성 있게 공동체의 기도를 드러왔다. 그 후, 전통적인 곡조로 이루어진 현재의 연도로서 한국 고유의 위령기도를 탈상까지 계속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로마 예식서의 노래로 하는 위령기도가 박해시대 잠복 기리시탄 시대에 일본화된 장례문화가 도착화되고 변용되어 간다. 현재 일본 가톨릭 장례미사에서는 사제의 상장례의 기도에 따라 ‘아멘’이나 침묵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이 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일 양국의 가톨릭 상장례 문화의 차이 중 특히 고유의 위령기도가 형성되는 데에는 각국 고유의 유교민속과 불교민속의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Comparison of Funeral Culture i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Catholic Funeral Mass and Prayer for the Dead -

Cho, Jung-Yeon

This study compared and discussed the funeral rites of Korea and Japan, particularly, Catholic funeral culture and prayer for the dead harboring both countries' tradition and emotions, by a diachronic approach. In Korea, the Psalms have been sung in the funeral rites that preserve the tradition of the Roman Catholic where people prayed mercy, forgiveness and eternal rest for the dead, consistently as a community. Afterwards, the Yeondo composed in the traditional melody has been used until now, and the Korea's unique prayers for the dead continue until the end of mourning.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 prayer for the dead sung from the Rituale Romanum has been indigenized and transformed during the periods of persecution and Secret Christians. Currently in the Japanese Catholic funeral mass, it is mainly seen that the memory of the deceased is honored with "Amen" or silence upon the funeral prayer of the priest. Thus, this study confirmed that among the differences in Catholic funeral culture between Korea and Japan, particularly Confucian and Buddhist folklore of each country has greatly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ir own prayer for the dead.